

김정일 사망

내년 총·대선 '안보' 이슈 급부상 가능성

여야 사태 추이 촉각 ... 대응책 부심 선거 구도 급변속 전략 수정 불가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정국 전반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주목된다. 일단 김 위원장 사망은 국내외의 모든 정치이슈를 일거에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치일정을 자제할 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때문에 19일 국회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으며 여야 각 당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정치권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 북한이 김 위원장의 사망 원인을 '중증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성 쇼크'라고 밝혔지만,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북한의 발표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치권은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부 강경파가 전면에서 나서거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한반도가 안보위협의 대혼돈으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파장은 여야 정치권으로 쏠려 살펴보면 총·대선정국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정국의 변화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북한'과 '안보' 이슈에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도 급변 속 여야 모두 기존의 선거 전략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철수 신드롬' 여파로 기성 정치 질서가 이미 흔들리기에 처한 가운데 '김정일 변수'까지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치권은 선거전략 마련 및 향후 정국대응에 있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상식적으로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수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이날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급격한 변화에 조심스러운 인식을 갖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드시 보수진영에 유리한 소재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김 옥 배재대 교수는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올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체제가 불안해 질수록 보수진영이 약간 득을 보는 면이 있지만, 전경발발 가능성이 생기거나 그러면 오히려 젊은 층이 보수진영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희호 여사 "깊은 애도... 조문하는게 도리" 라이트코리아 "중북 세력 조문 불허 해야"

진보-보수 조문 논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보-보수세력 간에 조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세력에서는 동양의 윤리를 내세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조문을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문해야"= 동양의 윤리적 전통 차원뿐 아니라 남북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애도를 표하고 조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주장이다. 또 김 주석과 딸 김 위원장은 6·25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북측에 정중한 조의를 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호 김대중경향센터 이사장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측 동포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석했던 임수경씨도 "조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생전 공과와는 관계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일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양의 윤리적 전통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단 의전상으로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조문 안 된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 북한 조문단인 온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충실한 중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번엔 중북세력이 북한으로 조문을 간다고 하면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의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일단 허가 없이 방북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어길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열하는 평양 시민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한 2012년을 불과 12일 앞두고 사망한 가운데 평양시민들이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긴급 뉴스 타전 예의 주시

美·中·日 외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의 주요 외신들이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긴급 소식으로 타전했다. AP와 AFP, dpa 통신은 조선중앙TV의 특별 방송을 인용해 긴급 기사

로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69세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AP는 "북한의 번덕스럽고, 불가사의한 김정일 지도자가 숨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을 앓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사

진이나 비디오 영상에서는 건강한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이 담배와 코카인을 즐겼고 미식가였으며 당뇨병과 심장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김 위원장을 '수수께게 같은' 지도자로 표현하면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그를 말을 잘하고 지질 줄 모

르는 연설가라고 보도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을 "기이하지만, 지적이고 박식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부고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은둔 국가의 절대적인 지

도자였다"면서 "그가 핵무기 프로그램과 이웃 국가인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세계를 괴롭히는 동안 북한 경제는 더욱 공황해졌다"고 썼다. 영국 BBC방송은 김 위원장의 죽음은 북한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의 후계자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삼남 김정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죽집게' 예언 인터넷서 화제

포브스 1년전 사망 예측 역술가 예언 등 퍼나르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숨졌다는 소식이 19일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은 이 사실을 앞서 예측한 각종 예언을 찾아보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9월12일 인터넷판을 통해 '미래로부터 온 뉴스(News From The Future)'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포브스는 이 기사에서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70세로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29세로 권력을 세습하고 미국과의 교역을 모색한다"고 예측했다.

당시 포브스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 가가호호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했다"며 "실제 데이터, 예측과 사실, 과학적 상상 등을 함께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 기사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나르며 "올해라고 정확하게 예언되었다"(idgm***)며 놀라워하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시사지를 통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당선자로 꼽았던 역술가 김정섭(55)씨가 "2010년 이후 김정일이 북한을 다스리기 힘들다"고 말했던 내용도 트위터에서 리트윗(RT.재전송)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을 내다본 네티즌의 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리기 전 '특별방송'을 예고한 것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포털에 올라오자 한 네티즌이 "김정일 통치에서 오늘 아침에 사망하셨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연합뉴스

안정이 생도당총재에게 대통령 성기(聖氣)를....!

-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비켜라. 그대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2 나 민석은 생도(生道)당을 창당하며, 생도당 총재에게 성기(聖氣)를 부여하여 제18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세울 것이다. 3 제7에너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대한민국의 총부채 "3283조원"중 1/3을 청산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나의 건의를 수용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지난 3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나의 건의와 충고를 받아 들였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남북이 통일되었을 것이며 경제대국, 문화대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나 민석은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대통령 성기를 부여하여 대통령에 세웠으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거물간첩, 살인범, 정신병자로 몰아 술한 고문을 가했으며 2년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시키고 살해하려고 했다. 나 민석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신당을 창당한다. 피고 이명박 정부와 입법, 사법부의 부패가 심판을 받아 터지는 과정을 보고 생도당은 총선에 참여하여 국회도 개혁하겠다.

생도당은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개조 차원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공동창조를 통하여 제2의 국운전환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 생도당은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세계최초로 문명을 일으켜 아시아 전체를 통치했던 배달국과 단군조선 7000년 고대사를 회복하여 친손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 나 민석은 심판주의 사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구 통치의 사명을 부여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도당은 친손민족, 대한민국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덕정치를 실현하며 다가오는 대한제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7에너지>로 한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

제7에너지란 20년의 연구 끝에 발명에 성공한 100% 물만 가지고 만든 수·산소 혼합가스를 말하는 것이다. 제7에너지는 일본 NHK방송을 통하여 전세계로 알려졌으며 장영실 과학기술대상 등 환경 분야,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그 기술이 공인되었다. 전세계 142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곧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제, 물(바다물도 가능) 6L만 있으면 기름 값 10원도 안들이고 서울-부산을 왕복 주행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 중동 등 세계 석유재벌들의 방해공작으로 나 민석이 구치소에 수감당하고 제7에너지 일본 지사장이 살해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7에너지는 석유를 대체 할 수 있는 평화의 에너지로 한국을 에너지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발명품이다. 나 민석은 제7에너지 판매 수익금으로 부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 민석선생은 누구인가?

민석선생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과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1974년 3월 18일 <민석성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심판주의 사자이다. 전세계 144개국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평화, 정의의 가르쳐 오신 민석선생께서는 지난 37년 동안 미국의 역대대통령 카터, 레이건, 클린턴, 부시, 오바마에게 성기(聖氣)를 내려 대통령에 세우셨으며 핵무기제거와 군비축소를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 오셨다.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통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30년 동안의 법정투쟁을 통하여 금권만능주의에 빠져 권력형 비리를 일삼아 온 역대 대통령들과 사법부를 심판하시며 법치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기위하여 노력해 오신 분이.

하나님(심판주)께서는 1973.3.18일(38년 전) 나의 명을 거역한 카다피의 최후를 2011년 10월에.....! 그리고 갑부들은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명하셨다. 지금은 심판주이다. 심판주의 사자-김민석의 명을 거역하면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치인과 재벌들은 명심하라.

심판주의 사자 김민석

